

# 후마니타스칼리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다섯가지 쟁점 놓고 두시간 반 열띤 토론

김수혁 기자 sherk@knu.ac.kr  
이서립 기자 sllee1001@knu.ac.kr  
이후승 기자 hooeung.lee@knu.ac.kr

#. 지난 5일, 우리신문은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과 후마구조대)를 초청해 후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문제,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 폐지 및 '우사세 폐지 반대 위원회(위원회)' 해산, 교양 강좌 축소 협의 없이 진행된 대학영어 인원 증가가 주요 안건이었다. 서울캠퍸스(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 김민철 세계와 시민 PD 교수, 고봉준 중핵교과 PD 교수, 고인환 글쓰기 PD 교수가 후마 층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 참가자 외에도 약 30여 명의 학생, 교수, 직원 등이 참석했다. 진행된 토론 내용은 가독성을 고려해 편집했다.

## 도입발언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첫 번째 안건으로, 학교는 '대학영어 인원 증가는 과목 전체적인 증감이다'라고 주장하지만 후마구조대는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대학영어 교수들은 이를 전혀 몰랐으며, 과목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조정이다. 둘째, 학교는 '개편과 시간강사 해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후마에 강사가 많이 포진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발언이다.셋째, 교양강의 축소다. 학교 측이 재정문제 때문에 강의를 수백여 개 감축했는데 강의 축소와 재정 문제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들을 강의가 없고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끝으로, 여섯 가지 요구를 한다. 교양강의 개수를 회복시킬 것, 우사세를 회복시키거나 그렇지 못하겠다면 동등한 양과 질의 대체 강좌를 마련할 것, 시간강사를 재고용 할 것, 더 이상 대학영어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 거짓으로 후마구조대를 비난한 것에 대해 공식 대자보와 정정 메일을 통해 해명할 것, 후마 재도약 3.0 과정에서 학생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후마-이영준 학장 : 후마 출범 당시 모두가 놀랐다. 대학이 취업 학원으로 전락한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었다.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후마는 경희대학교의 상징이었다. 작년부터 준비한 재도약 프로그램을 통해 필수교과 정원은 25명으로 줄었다. 어느 대학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해냈다. 젊은 세대가 어떤 미래를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려한 결정으로, 새로운 교과도 도약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에 따른 고통도 있었다. 소규모 강의를 위해서는 중핵과 두 과목 중 하나인 우사세를 필수교과에서 선택과목으로 바꿔야 했다. 그��지만 후마는 강의와 강사를 줄이지 않았다. 후마는 출범 당시 일반 강사의 2배에서 3배의 강의료를 자질하는 60여 명의 객원교수로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절반 이상이 비정년전임교수로 전환됐다. 타대보다 등록금이 배반 위상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비용의 교양교육에 짐을 헤울여 있다. 후마구조대 학생들의 주장을 하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학교의 교육적 비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선한 의지를 험하하지 말아 달라. 힘을 합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

▶안건1. 개편과정의 소통문제 : 소통 적절하게 이뤄졌는가?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학생들을 상대로 재도약 된 안내 없이 일부 교수자들만 개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총학생회(총학)과

눈의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11월 말 개편 설명회 자료를 보면 조인원 당시 총장과 함께 TF에서 6개월에 걸쳐 개편안을 만들었고 몇 개월 지난 다음 교수자들이, 또 몇 개월 지난 다음에야 캠퍼스 당 한 명씩 두 명의 학생이 TF에 참여했다. 참석 학생에 따르면 이미 개편안은 거의 만들어져 있었고 학생들에게는 YES, NO만 물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순서가 잘못됐다. 개편 과정에서 미리 다 함께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논의해야 했다. 학교는 소통을 했지만 그래서 재개정으로 교과목에 대해 끊임없이 학생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  
교육 과정 개편은 일반적으로 탑다운 방식이다. 물론 그다보면 소통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재개정으로 교과목에 대해 끊임없이 학생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

후마 이영준 학장

▶세계와 시민 교과 신설, 성급했나?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개편에 대해 학생들이 잘 몰랐던 것은 개편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의 가치 탐색(인가탐)'이나 '시민교양(시교)',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를 만들 때는 몇 년간 투자하고 논의했다고 알고 있다. '세계와 시민(세시)'은 6개월 만에 만들었다는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다는 기획이 이에 그렇게 급하게 진행됐다 했는지 의문이다.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가 새로 나왔을 때도 학생 불만이 많았다. 급하게 만들어서 재도약 제대로 안 잡혀 있고 수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후마 고봉준 중핵교과PD 교수 :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했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급하게 준비했다고 반드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지난 겨울방학 세시 워크샵에서 후마구조대 학생들이 '두 달 만에 해서 교재 만들 수 있겠나?'고 했는데 만들지 않았다. 인가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저를 나왔을 때는 교재가 너무 두껍거나 비싸다는 등 반응이 냉랭했다. 하지만 이후 학생 의견을 수렴해 200페이지 가량은 줄어내고 인착했다. 세시를 왜 만들었느냐 할 수는 있지만 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은 문제가 있다.

▶안건2. 우사세 폐지반대위원회 해산 문제 : 강의비정 지연으로 비대위 해산에 압력 넣었나?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우사세 폐지반대위원회(위원회) 해산 문제도 불통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개편 설명회 당시 교수자 반대가 나오자 TF의 우기동 교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자 학생들은 아国务도 오지 않았다. 학생과 교수자의 반발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해명해야 했다. 오히려 공청회 직전 강의비정 메일을 보냈다고 행정 절차라고 하면서 위원회 입장에서는 암묵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처사다.

후마 고봉준 중핵교과PD 교수 :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신청, 희망과 목표를 위해 강의비정을 할 때는 캠퍼스와 요일, 시간 등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강의비정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 강의비정과 위원회가 결행됐는데 세시를 맡은 건지 말지 않을 견지 물어야 했다. 위원회가 세시 신



“  
개편의 순서가 잘못됐다. 먼저 미리 다 함께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논의 했어야 했다. 학교는 소통을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잘 몰랐고 그렇다면 학생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

후마 이영준 학장



“  
언론 인터뷰에서 절반 가량의 강의가 사라졌다고 말했는데 그로 인해서 학교 내외에서 큰 오해와 논란이 벌어졌다. 이 책임은 누가 지나? 후마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진행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 물론 그러다보면 소통은 언제나 부족하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마가 처음 출발한 이후 재개정 작업이 꾸준히 이뤄졌다. 현재도 교과목에 대해 학생 의견을 끊임없이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

고봉준 중핵교과 PD 교수



“  
교양교육이라는 후마의 대원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방법이 필연적으로 특정 과목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

김민철 세계와 시민 PD 교수



“  
강사법과 시간강사 처우에 관해 우려하는데 전임 회의에서도 어떻게 하면 강사 한 분의 피해라도 더 덜까 고민한다. 대립만을 부각시키기 보다 어떻게 함께 잘 해낼까 고민하면 좋겠다.  
”

고인환 글쓰기 PD 교수

설에 반대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박상용(첨관인) 전 우사세 비대위원장 교수 : 그렇다면 세시를 제외하고 강의를 배정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왜 인기탐 등 다른 과목 먼저 배정하지 않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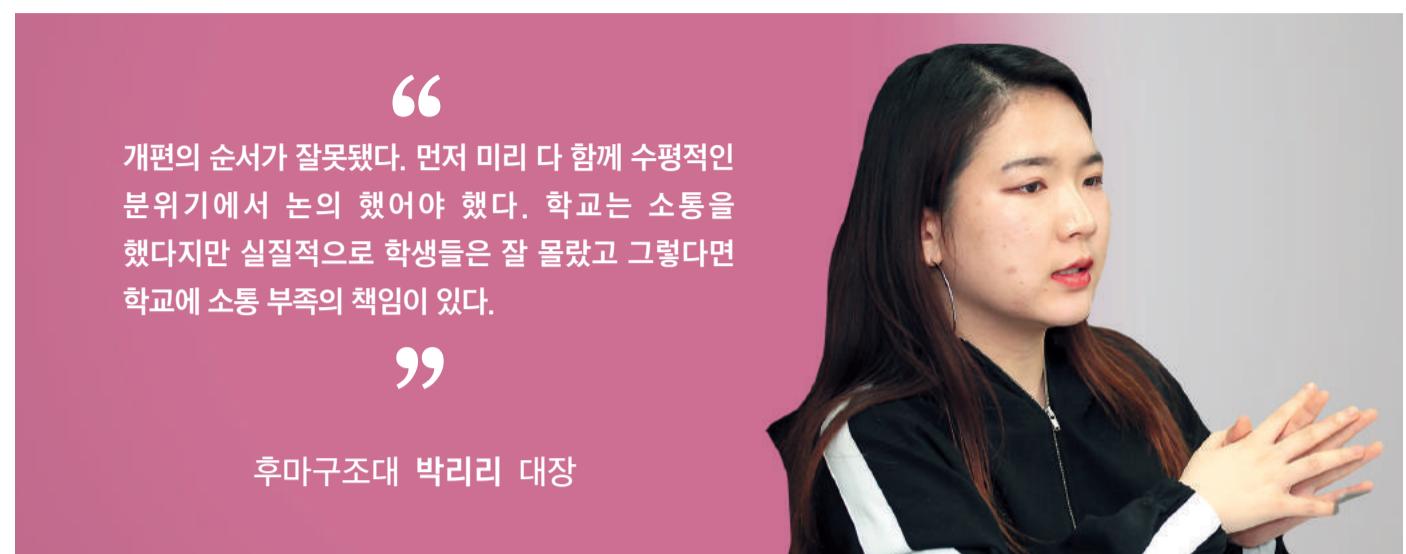
후마 고봉준 중핵교과PD 교수 : 전체 시수 가운데 일부만 따로 배정하는 전례가 있다. 강의비정을 할 때는 캠퍼스와 요일, 시간 등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강의비정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 강의비정과 위원회가 결행됐는데 세시를 맡은 건지 말지 않을 견지 물어야 했다. 위원회가 세시 신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했다.

▶우사세 폐지에 내부 논의 부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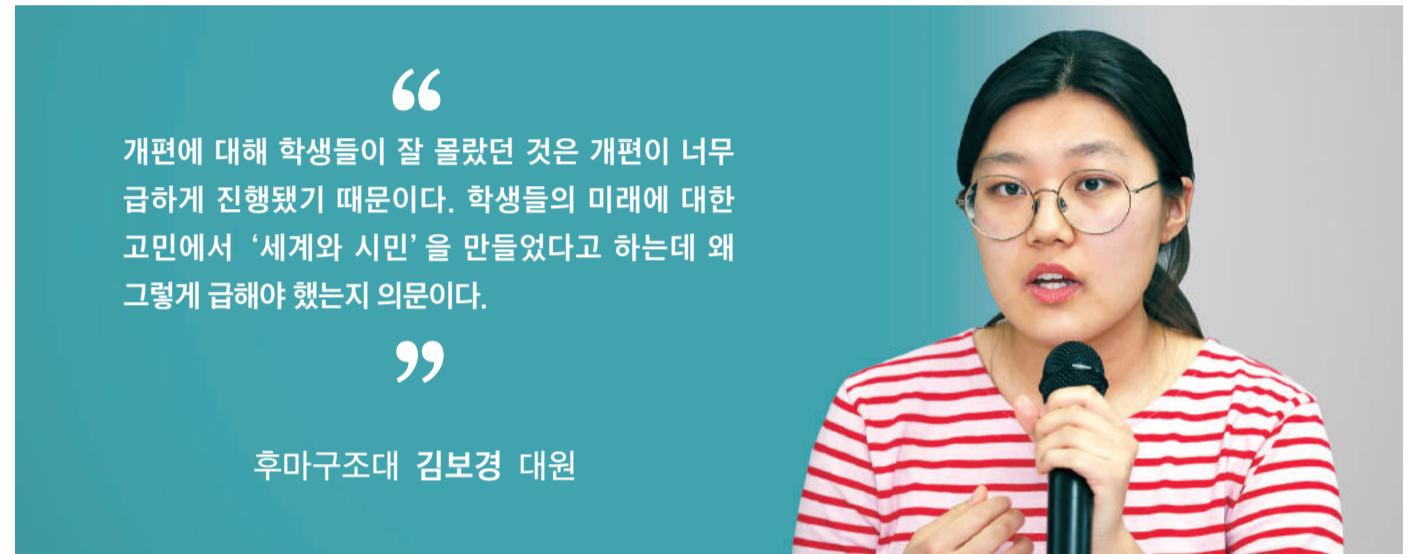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우사세가 폐지될 수는 있지만 왜 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됐다는 것이 문제다. 교수자, 학생 의견도 충분히 묻지 않고 일부 교수자들이 독단적으로 폐지될 결정했다.

김종인(첨관인), 후마 교수 : 개편이 탑다운으로 시작했다고 끝도 같다른 법은 없다. 탑다운으로 시작했다라도 이후 당시자들과 토론이 필요했다. 중핵교과에서 우사세가 폐지된다는데는 아주 큰 문제다. 미리 토론했다면 개편 발표 뒤에 이런 식의 반대가 뛰어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을 전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협박이나 협박이



“  
개편에 대해 학생들이 잘 몰랐던 것은 개편이 너무 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세계와 시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강의를 줄인 적이 없다.  
”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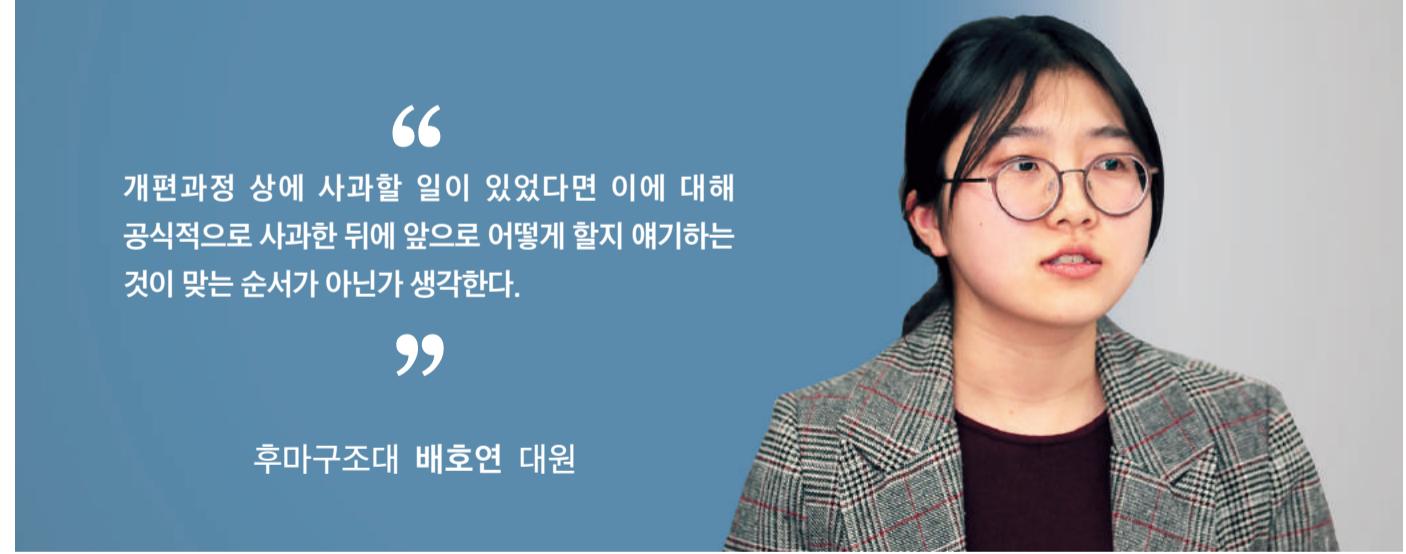
“  
개편에 대해 학생들이 잘 몰랐던 것은 개편이 너무 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세계와 시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강의를 줄인 적이 없다.  
”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기 전에 지난 과오를 씻고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서 개편과정을 되짚어 보고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

후마구조대 박하연 대원



“  
개편과정 상에 사과할 일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뒤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하는 것이 맞는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

후마구조대 배호연 대원

김수혁 기자 sherk@knu.ac.kr  
이서립 기자 sllee1001@knu.ac.kr  
이후승 기자 hooeung.lee@knu.ac.kr

생기는 이유는 특정 교과목이나 교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선착순에 따른 경쟁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다. 교수자가 엄청난 개수의 강의를 하지 않는 이상 수료를 못 맞춘다.

후마 고봉준 중핵교과PD 교수 : 많은 대학들이 2005년도 이후 강사를 줄이는 대신 계약직, 강의 전담, 비정년전임 교수를 썼다. 강사가 엄청난 수의 강의를 하지 않는 한 전임, 계약직, 강사 순으로 입금이 많다. 강사가 맡은 여러 과목을 줄여줄 때 전임교수의 월급과 맞먹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렇지만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수의 강의 비율, 충원 비율이 부족해서 사이버 강의의 수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라갈 수 있다.

후마 김민철 세시PD 교수 : 체감 상 수강 신청 대량이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사이버 강의는 전체 강좌의 2%밖에 안 된다. 과연 이 때문에 대량이 줄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료를 해석할 때는 주관이 들어가는 한 된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온라인이 유지되려면 교육의 질이 확보돼야 한다. 그래서 조교들이 옆에 서면을 하고 있다.

안명진(첨관인), 사회학 2015 : 사이버 강의는 수가 적어도 몇 백 명이 수강한다. 숫자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학생들이 이 느끼는 정규강의는 배분과 자유이수다. 후마 교육자협의회(교협)에서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실제 배분과 자유이수에서 100여 개의 강의가 사라졌다.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조제에 따라 한 학기를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해 달라. 대학원 어를 인터넷 강의로 전환하면 돈이 줄어든다. 소규모 수업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배분과 자유이수에서 정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수업이 줄어들고 한 수업에 학생 수가 많아진다.

유정원(첨관인), 후마 전 학장 : 강의 수를 비교할 때는 2010년과 2014년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2011년에 교양학부 과목을 이수해 하는 학생들이 후마 과목을 신청하기 때문에 수강신청 대량이 일어났다. 신규 과목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뒷에 기존 강사들에게 분분 요구를 했다. 두 학기 동안 200여 개의 강좌가 늘어났고 예년과 달리 1.5배 이상의 강의가 증가했다. 그리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강의가 줄어든 것이다.

안명진(첨관인), 사회학 2015 :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 후마 교협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63개 강의가 또 줄어든다. 교양으로 강의가 감소하는 것은 분명하다.

후마 이영준 학장 : 후마구조대가 사실과 주장하는 강의 400개 죽은 시간강사 67명 일방적 해고 통보는 사실과 다르다. 연속학기 조제에 따라 한 학기를 쉬어야 하는 경우, 강의평가 80점 미만인 경우, 교육과정 폐지 및 개설 강좌 조정, 개인 사정 때문에 강의를 말기지 않은 것이다. 이 해고로 불수는 없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6학년도 회기부터 강단에 서지 못한 사람은 몇 명이다.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모든 학생이 같은 강의를 드리고 싶다. 참관인 교수 사이에서도 증인 역할이 때문에 의혹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숫자 이야기만 하고 실질적인 학습권, 교육권에 대해 얘기하지 못해 아쉽다.

▶안건4. 시간강사 해고 및 대학영어

후마 고봉준 중핵교과PD 교수 : 후마구조대가 주장한 '강의 400개 죽은 시간강사 67명 일방적 해고 통보'는 사실과 다르다. 연속학기 조제에 따라 한 학기를 쉬어야 하는 경우, 강의평가 80점 미만인 경우, 교육과정 폐지 및 개설 강좌 조정, 개인 사정 때문에 강의를 말기지 않은 것이다. 이 해고로 불수는 없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6학년도 회기부터 강단에 서지 못한 사람은 몇 명이다.

